

소(笑)·심(心)한 일상 특특

수능 시험 뒷이야기

취재·사진 김기선 리포터 quokka@naeil.com



딸과 같이 의논해서 준비한
도시락 메뉴~
가장 맛있었다는
간장삼겹살! 굵고 졸이고
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잘 먹어야 잘 본다?!

“밥 잘 먹었다는 소릴 하니깐 그냥 너무 예쁘더라.”

올해 수능을 치른 딸을 둔 지인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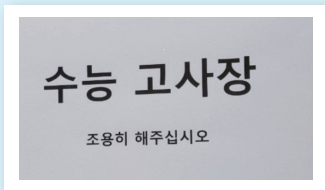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온 아이가 애타게 기다린 엄마를 보고 한 첫마디래요. 지인은 수능 도시락을 싸려고 새벽 4시에 일 어났답니다.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익히고 간장과 굴 소스로 만든 양념장에 기름 쪽 뺀 고기를 다시 조리 만든 엄마표 간 장삼겹살. 도시락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 진미채와 달걀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전과 식이섬유 가득한 숙주나물까 지 5가지 반찬을 새벽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수험 생 엄마의 수고로움이 애뜻하게 들렸어요.

이 모녀의 수능 시험 준비는 사실 한 달 전쯤 시작됐거든요.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딸의 평소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 한 끝에 누룽지와 달걀프라이를 아침으로 먹고 등교했죠. 첫 날은 부담스러워하더니 3~4일이 지나자 속이 든든해서 공부 가 더 잘된다고, 아침밥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고 했대요. 아 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어떻게든 다 해준다는 모녀의 집 밥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잠깐이지만 엄마 밥의 힘! 밥 힘(?) 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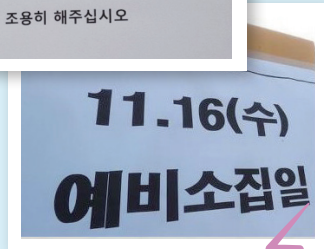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먹을거리는 바쁜 엄마들에겐 늘 고민 거리죠. 가족들이 좋아해 자주 끓인다는 미역국도 수능 시험 이 가까워지면 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빵 도 많이 먹으면 빵점 맞는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시험 보는 날 미역 국 잘 안 먹긴 하잖아요.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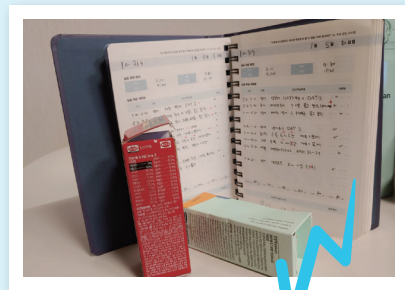
도시락 준비 완료 ^^ 부디 엄마 밥
기운받아 끝까지 힘내보자~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딸 파이팅!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비소집일!
수능 전날부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대네요.



아이도 떨고 엄마도 긴장이 돼서
청심환을 같이 나눠 마셨더니~
친구들이 그 이야길 듣고 미스
청심환이라고 했대요.

수능 전날부터 떨렸었다!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다녀온 아이가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미스 청심환이래~ 수능 전날인데 왜 이렇게 떠냐고~’라며 투덜대더라.”

11월 16일 수능 예비소집일 아침. 딸과 함께 청심환 한 병을 반반씩 마셨다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능 날 아침이 아니고 전날 마셨다는 얘기지?”

좀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이가 떨린다고 하니까, 나도 긴장돼서 같이 나눠 마셨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미스 청심환’이란 소릴 들었나 봐. 하하. 수능 전날부터 그리 떨더니만 다행히 수능 날 아침에는 가족들에게 농담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여 안심이었대요.

고사장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짱하디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기도하러 성당으로 갔답니다. 첫 기도는 수능 1교시가 시작되는 8시 45분부터 80분간 진행됐대요. 성당의 기도 안내자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고도 애절함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이제 아이들이 국어 시험지를 받고 있을 시간입니다”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해요.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 8시간 이상을 기도로 동행하는 곳이다 보니 눈물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대네요. 분명 아이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뜨끈한 보리차 끓여 보온병에 담느라 애 많이 썼을 텐데, 엄마는 씩씩하게 고사장에 들어간 아이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수험생 엄마들 모두 존경스럽네요. @